

총회장 및 부 총회장이 결혼 개정안에 대한 서신을 보내다

친애하는 미국 장로교 성도들과 친구 여러분:

우리 주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장로교인들은 제 221 차 미국 장로교 총회 이후로 9 개월 동안 총회에 추천된 사항들에 대해 대화와 분별의 과정을 밟으면서 기도를 해왔습니다. 오늘, 개정안 14-F (W-4,9000 결혼에 대한 개정안)가 통과되기 위해 필요한 노회 과반수의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승인된 개정안은 결혼의 신성함과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커플들의 서약을 높여 줄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목사들로 하여금 결혼식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목회적 재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그렇게 할 때에 "...목사는 결혼식을 위해 교회 부지의 사용을 허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위를 지닌 당회의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개정안이 승인 되기 위해 필요한 노회 과반수의 찬성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개체 교회들과 노회들과 대회들이 결혼 및 가족에 관해 계속해서 대화할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가부"의 표결이 종지부를 찍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바램의 연속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요구하는 파트너십, 성경 연구, 서로의 말을 듣고 함께 경청하기, 그리고 다양한 의견 속에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자 하는 결의가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똑같은 말씀 (the same Word)이심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공동체가 되라는 부르심을 포용하는 변혁의 공동체 (transformative community)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확신합니다.



Ruling Elder Heath K. Rada
Moderator, 221st General Assembly (2014)



The Reverend Larissa Kwong Abazia
Vice Moderator, 221st General Assembly (2014)